

한국인 이민 1.5세대 청소년의 민족정체성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장인옥** · 김현아***

초 록

본 연구는 한국인 이민 1.5세대 청소년의 민족정체성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심리적 적응(삶의 만족, 불안, 우울, 위기 및 일탈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만 5세에서 17세 사이에 캐나다에 부모를 따라 이민 온 한국인 이민 1.5세대 청소년 150명으로 현재 나이 만 15세에서 24세 이하 평균 연령은 19.2세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2년 11월-2013년 1월까지였고, 연구 도구는 Diener 등(1985)의 삶의 만족 척도, Bean 등(2007)의 HSCL-37, Phinney(1992)의 민족정체성 척도, Fuertes와 Westbrook(1996)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민족정체성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순서대로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심리적 적응의 중요한 예측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한국인 이민 1.5세대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적 요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였다.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적 요인과 태도적 요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였다. 그 외 우울, 위기 및 일탈행동, HSCL-37 전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가족적 요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인 것으로 예측되었다. 한편 민족정체성은 심리적 적응의 모든 하위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가족적 요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한국인 이민 1.5세대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예측해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논의와 함께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의의가 검토되었다.

주제어 : 1.5세대, 한국인 이민 청소년, 민족정체성, 문화적응 스트레스, 심리적 적응

* 본 연구는 장인옥(2013)의 석사학위논문을 일부 수정한 것임.

** 벤쿠버 아름다운 상담센터 임상카운슬러

*** 서울 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교신저자, haha6082@iscu.ac.kr

I. 서 론

캐나다는 500만 명 이상의 이민자가 거주하는 이민 국가이며, 200개 이상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문화 사회이다. 캐나다는 이민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고, 관대하며, 평등적인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이정수, 2012). 1967년 캐나다정부가 유색인종, 특히 아시아 계통의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이어서 1972년 트뤼도 정부가 ‘개방정책’을 주창하여 이른바 복합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표방하여 미국의 용광로 정책(Melting Pot Theory)과는 달리 이민족의 문화를 동시에 포용하며, 보다 적극적인 수용을 하면서 캐나다 한인사회 형성이 가속화 되었다(김규선, 2008). 외교부 재외동포 현황(2011)에 의하면 캐나다에 거주하는 해외동포 수는 23만 명*이 넘고 있으며, 50여년의 이민역사를 가진 한인 이민자 세대는 현재 1세대, 1.5세대, 그리고 2세대가 주가 되며 대체로 아직 어린 3세대를 포함한다.

최근 이들의 이민 동기는 단순한 생활고나 기회의 부재보다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해서(이경란, 2006)이며, 특히 1990년대의 한인사회는 ‘기러기 가족’이라는 신조어를 낳을 정도로 자녀 교육과 안정된 사회,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이민의 성격을 지닌다(김규선, 2008). 하지만 이러한 이민의 동기나 성격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민자들은 새로운 문화와 언어에 적응하며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높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한유경, 2009).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이주민의 우울, 불안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김후조, 2010; 한유경, 2009; Berry, 1997, 2005; Nho, 2000). 이렇듯 지금까지의 연구주제들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음으로 인해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화적응 이외의 요인을 간과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이민자의 사회정착 과정에서 민족정체성이 심리적 적응에 관련되기도 한다. Costigan, Koryzma, Hua and Chance(2010)의 연구결과 캐나다 이민 중국 청소년의 경

1) 캐나다 재외동포 현황

재외국민			재외국민 합	시민권자	재외동포 총계
영주권자	일반 체류자	유학생			
85,951	22,084	20,791	128,826	102,666	231,492

외교부 재외동포 현황(2011)

우, 높은 민족정체성이 평균이상의 학업성취나 자존감, 그리고 낮은 우울증과 관련이 있었다. 한편, 민족정체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를 단순한 선형관계로 보지 않고 민족정체성이 강할수록 심리적으로 더 건강하지만 연령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있다(Grant, 2008)고 보거나, 적응수준에 따라 달리 해석하는(허원무, 1991; 이경란, 2006 재인용) 견해도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민족정체성과 심리적 적응 중 내현화 문제행동 중 일부인 우울증만 측정한다거나(Costigan et al., 2010), 민족정체성과 심리적 건강 간의 관계(Grant, 2008)만을 주요 변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시기의 심리적 적응으로서 일탈 및 위기행동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고,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민족정체성의 상대적 영향력도 검증해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심리적 적응의 긍정적 지표인 삶의 질에 있어서도 민족정체성이 관련이 있었다. Utsey, Chae, Brown and Kelly(2002)의 연구결과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아시아계 미국인이나 라틴계 미국인보다 인종과 관련된 스트레스, 민족정체성, 삶의 질이 가장 높았으며,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민족정체성과 문화적 인종주의가 삶의 질을 가장 잘 예측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이민자들은 높은 삶의 질을 기대하고 이민을 선택하지만 문화적응 스트레스 등을 겪게 되고 민족특성이나 적응수준에 따라 민족정체성이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또한 심리적 적응을 내현화 문제행동이나 외현화 문제행동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 지표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와 같은 긍정적 지표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한국인 1.5세대는 한인 사회에서 한국인 이민 1세대 또는 2세대가 아닌 이민자 자녀들을 설명하는 것에서 비롯된 개념으로(Danico, 2004), 캐나다 한국인 이민 1.5세대의 경우도 성인 나이 이전에 캐나다에 이민 와서 적어도 캐나다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1년이라도 경험함으로써 영어구사능력이 있고 한국에서 한국어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어서 한국과 캐나다의 이중 언어 구사능력은 물론 이중 문화에도 익숙한 경우를 말한다. Zhou(1997)에 의하면, 한국인 1.5세대는 그들의 가치, 그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애착, 언어능력, 그리고 세대간, 인종간의 절충과 같은 면에서 독특한 속성이 있다고 전제한다. 이런 관점에서 1.5세대는 1세대와 2세대를 연결하고, 모국과 이주국의 인종과 문화와 사회 그리고 경제까지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세대가 된다. 반면 1.5세대들은 1세대와도 2세대와도 사고와 정서에서 격차를 느끼며, 모국과 이주국의 문화와 사회에서도 완전한 이해나 동화가 되지 않는 동떨

어짐을 종종 경험하게 된다(Kim, 2011).

한편,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국인 이민자 중 이민 1.5세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민족 정체성, 문화적응 스트레스, 그리고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주로 선행연구들은 중국 이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Costigan et al., 2010; Utsey et al., 2002), 유학생(김후조, 2010; 이수연, 2009; 조은숙, 2011)과 한국 이민 여성(권복순, 2009; 김은재, 2010)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는 캐나다 거주 한국인 이민 1.5세대 청소년들의 민족정체성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그리고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 및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한국인 이민 1.5세대 청소년의 민족정체성은 심리적 적응(삶의 만족, 불안, 우울, 위기 및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한국인 이민 1.5세대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심리적 적응(삶의 만족, 불안, 우울, 위기 및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심리적 적응

심리적 적응은 개인의 삶의 양상을 총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으로써 부정적, 긍정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목혜연, 2007). 채정민(2003)은 긍정적인 측면에 해당되는 것은 자기존중감, 주관적 안녕감, 생활만족도 등이라고 하고, Ryff와 Keyes(1995; Grant, 2008 재인용)에 따르면 삶의 만족은 심리적 건강의 핵심지표로 잘 알려져 왔다. 한편 채정민(2003)은 기존의 연구에서 부정적 측면이 긍정적 측면보다 문화적응 수준에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Berry, 1997),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 측면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 이유로 부정적인 측면에 작용하는 문화적응 요소와 긍정적인 측면에 작용하는 문화적응 요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이주자는 새로운 사회에서 불안감, 우울감, 소외감,

정체성 혼미 등의 부적응 양상을 보이게 되고(채정민, 2003),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거나 집단 정체성이 낮은 대학생은 우울 증상을 동반한다(Walker, 2008; 김희경 외, 2010 재인용). 특히, 청소년기의 이주 후 심리적 적응은 이주연령, 이주기간, 언어 수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목혜연(2007)의 연구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심리적 부적응도 높아졌고, 이수연(2009)의 연구에서는 이주기간에 따라 부분적으로 청소년기 우울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김은재(2010)의 경우 이주국의 언어 수준이 낮은 경우에도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Nho(2000)의 연구 결과 미국에서 태어나 영어를 선호하는 청소년들에 비해서,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말을 선호하는 청소년들이 더 높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보였으며, 음주 및 흡연사용이 많았고, 내적문제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채정민, 2003).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심리적 적응의 변인으로 보았던 부정적 측면의 심리적 적응 뿐 아니라 긍정적 측면의 심리적 적응으로서 삶의 만족도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캐나다 거주 한국인 이민 1.5세대의 심리적 부적응 예방 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민족정체성

민족정체성은 외부적인 측면과 내부적인 측면으로 구성될 수 있다. 먼저 외부적 측면은 모국어로 이야기하는 것과 민족 전통적인 것을 행하는 것과 같이 문화·사회적인 관찰 가능한 행동과 관련이 있다. 민족정체성의 내부적인 측면은 이미지(images), 생각(ideas), 태도(attitudes), 그리고 감정(feelings)과 관련이 있다(Isajiw, 1990; Isajiw, Sev'er & Drideger, 1993). 한편 민족정체성은 자신이 속한 사회집단에 대한 지식과 그 집단의 구성원임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치와 정서적 의미(Tajifel, 1981; 양계민, 2009 재인용), 또는 공유된 민족적 특성으로 인해 어느 한 개인이 특정 민족 집단에 대해 느끼는 소속감이라고 정의한다(Phinney, 1990; Shibutan & Kwan, 1966; 양계민, 2009 재인용).

그렇다고 하면, 한국을 떠나 캐나다에서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한국인 1.5세대 청소년들의 민족정체성은 어떠한 특성을 보일 수 있을까?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민족정체성의 의미는 구성요소나 적응수준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질 수 있다. 양계민(2009)은 사회 내에서 개인이 지니고 있는 민족정체성은 인간의 심리 사회적 적응에 순기능적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Yasui, Dorham and Dshion(2004)의 연구에서도 민족정체성의 하위요인인 긍정과 소속감은 모든 사회적 적응과 정서적 적응 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한편, 윤인진(1998)에 의하면 개인이 느끼는 민족정체성의 정도는 모든 한인들에게서 공통적이라기보다는 개인이 처한 사회 환경에 의해서 차별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허원무(1991; 이경란, 2006 재인용)는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때는 민족정체성이 큰 의미를 갖고 순기능을 하지만, 적응이 순조로울 때는 민족정체성의 의미가 감소한다고 본다.

민족정체성과 삶의 만족 간에는 서로 상반되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민족정체성과 삶의 만족 사이에 정적인 상관관계(Crocker, Luhtanen, Blaine & Broadnax, 1994; Grant, 2008; Ward, 2006)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와는 반대로 Hovey, Kim and Seligman(2006)은 한국계 미국인에게서 Lee(2003)는 동양계 미국인에게서, Mossakowski(2003)의 필리핀계 미국인과 McMahon와 Watts(2002)의 도시 아프리카계 미국인 청소년의 연구에서 우울증과 민족정체성 간에 부적 관계가 보고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국인 이민 1.5세대 청소년의 민족정체성이 심리적 적응에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 스트레스(acculturative stress)는 타국의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적응능력을 넘어서는 내적, 외적 요구로서의 스트레스 개념에 그 바탕을 두고, 여기에 사회적, 문화적 요소까지 확장한 스트레스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Lazarus & Folkman, 1984; 김후조, 2010 재인용). 문화적응은 새로운 기회와 같은 긍정적인 것과 차별과 같은 부정적인 것의 양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개념은 문화적응 과정에서 경험되어진 다양한 영향들과 더 잘 어우러진다(Berry, 2005). 하지만 대부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들은(김현아, 조영아, 김연희, 2012; 서보람, 2006; 이수연, 2009) 향수, 차별, 이질감과 같은 좁은 의미에서 이민자들이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을 포함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민자들이 경험하는 현재 가족과의 관계나 조국에 대한 태도 등을 함께 측정할 수 있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Berry(1997)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은 정신건강(우울, 불안), 고립감, 소외감과 주변화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과 같은 스트레스와 행동을 유발한다고 하고(권복순, 2009 재인용), Kang(1996; Nho, 2000 재인용)은 한국계 미국 청소년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심리적 고통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김희경 외(2010)는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는 우울이었다. 한편 경수영과 장수미(2010; 김후조, 2010 재인용)는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음주문제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우울, 불안과 같은 내현화 문제행동에는 정적인 상관을 보이지만 외현화 문제행동은 다루지 않고 있거나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캐나다 거주 한국인 이민 1.5세대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사회생활, 조국에 대한 태도, 가족관계, 환경의 질과 같이 넓은 의미에서 살펴봄으로써 이민 청소년의 가족적 요인과 관련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함께 파악해볼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민족정체성이 긍정적 심리적응의 지표로서 삶의 만족도와 부정적 심리적응 지표로서 내현화 문제행동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입증해보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절차

연구 대상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국인 이민 1.5세대를 포괄적으로 만 5세에서 만 17세 사이의 나이에 부모를 따라 캐나다에 이민한 자로 현재 만 15세 이상에서 만 24세 이하인 자, 캐나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소지한 자, 그리고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는 자에 한하였다. 이들의 성별은 남 71명, 여 79명이었고, 평균 나이 19.20세, 캐나다 이주 시 평균 나이 10.36세, 캐나다 거주기간 평균 9.04년, 영어 말하기 능력은 대부분 우수하여 영어 쓰기능력을 이주국의 언어적응으로 포함시켰으며, 기타 세부 사항은 표 1과 같다.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 예비조사에서 15명의 학생(고1~ 대학3학년/이민 2년차~9년)에게 설문지를 한국어와 영어로 주어서 풀게 한 결과 모두 한국어로 번역된 글이 더 어렵고, 영어질문이 훨씬 분명하게 이해된다고 하였다. 사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영문으로 실행되었으며, 온라인(FluidSurveys.com)참여와 인쇄된 설문지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되었고, 설문참여 방식에 따른 동질성 검증 결과 민족정체성의 일부 요인에서만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t = 2.022, p < .05$),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2년 11월 20일부터 2013년 1월 30일까지였으며, 설문참여는 주로 BC주 광역 밴쿠버와 그 주변에 소재하는 청소년 기관, 학교의 한인단체, 그리고 교회와 성당 등의 청소년 담당자를 통하여 참여되었다. 온라인 설문 91명과 인쇄된 설문지 86명으로 총 177명이 참여하였으나, 설문의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유학생 신분과 같은 부자격자 27명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150명(온라인 75명, 오프라인 75명)의 설문 답안이 최종 연구 자료로 사용되었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N=150)

변수	변수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자	71	47.3
	여자	79	52.7
현재 나이	15-18세	67	44.7
	19세 이상	83	55.3
	평균 19.20세(표준편차 2.687)		
캐나다 이주 시 나이	6세 이하	27	18.0
	7-9세	40	26.7
	10-12세	33	22.0
	13-17세	50	33.3
	평균 10.36세(표준편차 3.541)		
캐나다 거주기간	10년 미만	74	49.3
	10년 이상	76	50.7
	평균 9.04년(표준편차 3.323)		
영어 능력 (쓰기능력)	부족하다	22	14.7
	보통이다	85	56.7
	잘 한다	43	28.7
합계		150	100.0

2. 연구 도구

1) 심리적 적응 척도

(1) 삶의 만족 척도

Diener, Emmons, Larsen and Griffin(1985; O'Connor & Vallerand, 1998 재인용)의 삶의 만족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사용하였다. 삶의 만족 척도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의 인지 또는 판단의 요소를 평가하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그 예로는 “내 삶의 대부분은 내가 꿈꾸던 이상과 유사하다.”와 같은 문항을 포함한다. 각 문항은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매우 동의 한다.”까지 Likert 척도 7점 척도

로 구성되었다. 국내 이훈진(2009)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 = .86$ 을 보여주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 = .74$ 로 검증되었다.

(2) 정신건강 척도

정신건강 척도는 SCL-90에 근거를 둔 Bean, Derluyn, Eurelings-Bontekoe, Broekaert and Spinhoven(2007)의 HSCL-37(Hopkins Symptom Check List)을 사용하였다. 정신건강 척도(HSCL-37)는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들의 증상을 평가하는 것으로, 다문화기후와 청소년에게 적합한 상태로 수정되었으며, 증상과 감정 그리고 행동의 강도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된다. 문항의 구성은 내재화 문제행동으로 “긴장되거나 예민해지는 느낌이다.”와 같은 불안에 대한 문항 10개와 “쉽게 운다.”와 같은 우울에 대한 문항 15개,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위협한다.”와 같은 위기 및 일탈행동에 대한 문항 12개이다. 문항은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Likert 척도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김현아 외(2012)의 연구에서 전체 Cronbach $\alpha = .92$ 로 높은 내적 일치도를 보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Cronbach $\alpha = .91$ 로 높게 검증되었다.

2) 민족정체성 척도

Phinney(1992)의 청소년과 청장년들을 위한 민족정체성 척도(The Multigroup Ethnic Identity Measure: MEIM)를 사용하였다. 12개 문항의 민족정체성 척도(MEIM)는 자기 민족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묻는 내용들을 포함한다. 그 하위척도로 “나는 한국의 역사, 전통 및 관습에 대해 더 많이 알기위해 시간을 보낸다.”와 같은 문항을 포함한 ‘민족정체성에 대한 탐구(ethnic identity search)’ 5개 문항과 “나는 한민족에 대해 많은 자부심을 갖고 있다.”와 같은 문항의 ‘긍정·소속·전념(affirmation, belonging, and commitment)’에 대한 7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에서 ‘매우 일치 한다’까지 Likert 척도 4점으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는 고등학생 .81, 대학생 .90의 Cronbach α 의 내적 일치도를 (Phinney, 1992), 본 연구에서는 전체 Cronbach $\alpha = .81$ 로 검증되었다.

3)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는 Fuertes와 Westbrook(1996)의 개정판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The Social, Attitudinal, Familial and Environmental multicultural stress: SAFE-Revised)를 사용하였다.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SAFE)는 21문항으로, 새로운 나라에서 이민자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생활의 질, 조국을 향한 태도, 가족관계, 그리고 환경의 질과 같은 4개의 폭넓은 문화적응 스트레스 영역을 측정한다(Fuertes & Westbrook, 1996; Mena, Padilla & Maldonado, 1987). 4개 하위요인의 문항 예를 들면, 사회적 요인으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이해하는 것이 힘들다,” 태도적 요인으로 “나는 가끔 나의 민족적 배경에 대해 생각한다,” 가족적 요인으로 “내 미래에 대한 기대에 대해 가족들과 나 사이에는 갈등이 있다,” 그리고 환경적 요인의 문항의 예로 “한국인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 면에서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한다.”와 같다. 각 문항은 ‘스트레스가 아니다.’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이다.’까지 Likert 척도 5점으로 구성되었다. Fuertes와 Westbrook(1996)의 연구에서 전체 Cronbach $\alpha = .89$ 를 보고했으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Cronbach $\alpha = .84$ 로 검증되었다.

3. 자료처리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통계프로그램 15.0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제기된 연구 문제에 따라 기술통계 분석(표 2), 차이검증을 위한 t-test와 One way ANOVA, Pearson의 단순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마지막으로 여러 개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데 그 중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독립변수와 두 번째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등 독립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순서대로 파악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표 2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N=150)

	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심리적 적응	삶의 만족	2	7	4.53	1.036
	HSCL-불안	1	4	1.64	.529
	HSCL-우울	1	4	1.84	.530
	HSCL-위기 및 일탈행동	1	3	1.24	.280
	HSCL-37 전체	1	4	1.57	.368
민족정체성	민족정체성에 대한 탐구	1	4	2.92	.473
	긍정·소속·전념	2	4	3.21	.455
	민족정체성 전체	2	4	3.09	.398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요인	1	5	1.72	.808
	태도적 요인	1	5	2.47	.887
	가족적 요인	1	5	1.93	.875
	환경적 요인	1	5	1.93	.593
	문화적응 스트레스 전체	1	5	2.01	.543

IV. 연구결과

1.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적응의 차이검증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적응(삶의 만족, HSCL-37)의 차이검증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검증에서는 HSCL-우울에 있어서만($t = -2.376, p < .05$), 캐나다 이주 시 나이에 따른 차이검증에서는 삶의 만족($F = 3.167, p < .05$)에 있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현재 나이에 따른 차이검증, 캐나다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검증, 그리고 영어능력(글쓰기)에 따른 차이검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한국인 1.5세대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우울이 보다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0~12세의 나이 때에 캐나다에 이주 한 한국인 1.5세대들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이주 시 나이 7~9세, 6세 이하, 13~17세 순으로 삶의 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표 3

성별에 따른 차이검증

		N	M	SD	<i>t</i>	<i>p</i>
삶의 만족	남자	71	4.48	1.100	- .564	.573
	여자	79	4.57	.979		
HSCL-불안	남자	71	1.58	.549	-1.207	.229
	여자	79	1.69	.510		
HSCL-우울	남자	71	1.73	.524	-2.376*	.019
	여자	79	1.93	.520		
HSCL-위기 및 일탈행동	남자	71	1.28	.349	1.719	.088
	여자	79	1.21	.195		
HSCL-37 전체	남자	71	1.53	.386	-1.269	.207
	여자	79	1.61	.350		

* $p < .05$

표 4

캐나다 이주 시 나이에 따른 차이검증

		N	M	SD	<i>F</i>	<i>p</i>	post-hoc
삶의 만족	6세 이하	27	4.32	1.144	3.167*	.026	c > ad
	7-9세	40	4.67	1.054			
	10-12세	33	4.90	.975			
	13-17세	50	4.28	.929			
HSCL-불안	6세 이하	27	1.59	.607	1.980	.120	
	7-9세	40	1.81	.516			
	10-12세	33	1.55	.405			
	13-17세	50	1.58	.552			
HSCL-우울	6세 이하	27	1.89	.690	.504	.680	
	7-9세	40	1.83	.462			
	10-12세	33	1.75	.494			
	13-17세	50	1.88	.513			
HSCL-위기 및 일탈행동	6세 이하	27	1.27	.248	1.352	.260	
	7-9세	40	1.22	.211			
	10-12세	33	1.18	.219			
	13-17세	50	1.29	.365			
HSCL-37 전체	6세 이하	27	1.58	.457	.777	.509	
	7-9세	40	1.62	.328			
	10-12세	33	1.49	.265			
	13-17세	50	1.58	.405			

* $p < .05$ a: 6세 이하, b: 7-9세, c: 10-12세, d 13-17세

2. 민족정체성, 문화적응 스트레스, 심리적 적응 간에 상관관계 검증

민족정체성의 하위요인 중 긍정·소속·전념과 민족정체성 전체와는 $r = .900$ ($p < .001$)의 정적인 관계를 보여 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구학적 특성과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의 경우에는 성별과 HSCL-우울과는 $r = .192$ ($p < .05$)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남자보다 여자인 경우 우울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민족정체성과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의 경우에는 민족정체성 중 긍정·소속·전념과 삶의 만족과는 $r = .179$ ($p < .05$), 민족정체성 전체와 삶의 만족과는 $r = .198$ ($p < .05$)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민족정체성 중 긍정·소속·전념이 높으면 삶의 만족이 높게 나타났으며, 민족정체성 전체가 높아도 삶의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의 경우에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중 태도적 요인을 제외한 사회적 요인, 가족적 요인, 환경적 요인들과 삶의 만족과는 $r = -.185$ ($p < .05$)에서 $r = -.331$ ($p < .001$)의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문화적응 스트레스 중 사회적 요인을 제외한 태도적 요인, 가족적 요인, 환경적 요인들과 HSCL-불안과는 $r = .254$ ($p < .01$)에서 $r = .348$ ($p < .001$)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 전체와 HSCL-우울과는 $r = .208$ ($p < .05$)에서 $r = .331$ ($p < .001$)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중 가족적 요인, 환경적 요인들과 HSCL-위기 및 일탈행동과는 $r = .206$ ($p < .05$)에서 $r = .269$ ($p < .001$)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문화적응 스트레스 전체와 HSCL-37 전체와는 $r = .182$ ($p < .05$)에서 $r = .382$ ($p < .001$)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문화적응 스트레스 전체가 높으면 우울과 정신건강(HSCL-37) 전체도 높고, 문화적응 스트레스 중 사회적 요인, 가족적 요인, 환경적 요인들이 높으면 삶의 만족은 낮고, 문화적응 스트레스 중 태도적 요인, 가족적 요인, 환경적 요인들이 높으면 불안도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중 가족적 요인, 환경적 요인들이 높으면 위기 및 일탈행동도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5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성별	1																	
2. 현재 나이	.035	1																
3. 캐나다 이주 시 나이	.026 .354 ^{***}		1															
4. 거주기간	-.051 .197 [*]	-.430 ^{***}		1														
5. 영어능력(쓰기능력)	.020 -.075	-.474 ^{***}	.401 ^{***}		1													
6. 민족정체성에 대한 탐구	.015 .150	-.049	.080	.166 [*]		1												
7. 공장·소속·전념	-.077 .100	-.012	-.113	.046	.472 ^{***}		1											
8. 민족정체성 진척	-.044 .141	-.032	-.036	.113	.809 ^{***}	.900 ^{***}		1										
9. 사회적 요인	-.073 .299 ^{***}	.357 ^{***}	-.248 ^{***}	-.400 ^{***}	.069	.115	.111		1									
10. 태도적 요인	.109 .145	.018	-.105	-.088	.199 [*]	.245 ^{***}	.262 ^{***}	.350 ^{***}		1								
11. 가족적 요인	-.082 -.032	-.111	.062	-.069	-.178 [*]	-.278 ^{***}	-.274 ^{***}	.191 [*]	.070		1							
12. 환경적 요인	-.008 .075	.111	-.187 [*]	-.202 [*]	.146	.109	.145	.493 ^{***}	.466 ^{***}	.307 ^{***}		1						
13.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척	-.018 .178 [*]	.126	-.161 [*]	-.268 ^{***}	.075	.061	.077	.726 ^{***}	.694 ^{***}	.586 ^{***}	.770 ^{***}		1					
14. 삶의 만족	.046 .066	-.040	-.002	.067	.159	.179 [*]	.198 [*]	-.185 [*]	-.089	-.331 ^{***}	-.207 [*]	-.295 ^{***}		1				
15. HSL-불안	.099 .004	-.081	-.003	-.019	.014	.028	.026	.087	.306 ^{***}	.301 ^{***}	.254 ^{***}	.348 ^{***}	-.171 [*]		1			
16. HSL-우울	.192 [*]	-.015	-.006	-.047	-.079	.035	.012	.025	.213 ^{***}	.208 [*]	.273 ^{***}	.211 ^{***}	.331 ^{***}	-.385 ^{***}	.615 ^{***}		1	
17. HSL-위기 및 이탈행동	-.140 .137	.047	.031	-.059	-.101	-.004	-.053	.150	.009	.269 ^{***}	.206 [*]	.224 [*]	-.265 ^{***}	.373 ^{***}	.421 ^{***}		1	
18. HSL-37 진척	.104 .030	-.030	-.016	-.062	-.002	.018	.011	.182 [*]	.248 ^{***}	.343 ^{***}	.275 ^{***}	.382 ^{***}	-.334 ^{***}	.869 ^{***}	.881 ^{***}	.635 ^{***}		1
M						2.92	3.21	3.09	1.72	2.47	1.93	1.93	2.01	4.53	1.64	1.84	1.24	1.57
SD						.473	.455	.398	.808	.887	.875	.593	.543	1.036	.529	.530	.280	.368

(성별=남자:0, 여자:1, 영어능력=부족하다:1, 보통이다:2, 잘 한다:3)

* $p < .05$, ** $p < .01$, *** $p < .001$

3. 민족정체성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표 6의 모델1은 인구학적 특성만을, 모델2는 민족정체성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으며, 모델3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각 변수들이 심리적 적응(삶의 만족, HSCL-37)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모델1의 경우에는 설명력은 0.4%를 설명하며 인구학적 특성은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모델2의 경우에는 설명력은 4.4%를 설명하며 추가로 투입한 민족정체성은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모델3의 경우에는 설명력은 15.4%로 추가로 투입한 가족적 요인($\beta = -.237, p < .01$)이 삶의 만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1$).

HSCL-불안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모델1의 경우에는 인구학적 특성(설명력 1.7%)과 모델2의 추가로 투입한 민족정체성(설명력 1.8%)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모델3의 경우 설명력 19.4%로 추가로 투입한 태도적 요인($\beta = .253, p < .01$), 가족적 요인($\beta = .290, p < .001$)이 HSCL-불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HSCL-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모델1의 경우에는 설명력은 3.7%로 성별($\beta = .192, p < .05$)이 HSCL-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모델2의 경우에는 추가로 투입한 민족정체성(설명력 3.8%)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모델3의 경우에는 설명력 16.9%로 추가로 투입한 가족적 요인($\beta = .268, p < .01$)이 HSCL-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HSCL-위기 및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모델1의 경우에는 인구학적 특성(설명력 2.2%)과 모델2의 추가로 투입한 민족정체성(설명력 3.3%)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모델3의 경우에는 설명력 12.5%로 추가로 투입한 가족적 요인($\beta = .225, p < .05$)이 HSCL-위기 및 일탈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HSCL-37 전체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모델1의 경우에는 인구학적 특성(설명력 1.2%)과 모델2의 추가로 투입한 민족정체성(설명력 1.3%)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모델3의 경우에는 설명력 19.4%로 추가로 투입한 가족적 요인($\beta = .325, p < .001$)이 HSCL-37 전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001)이 HSCL-37 전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즉,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가족적 요인의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삶의 만족은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가족적 요인, 태도적 요인의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불안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가족적 요인의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우울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위기 및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가족적 요인의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위기 및 일탈행동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HSCL-37(불안, 우울, 위기 및 일탈행동)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역시 가족적 요인의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HSCL-37 전체 점수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한편 민족정체성은 심리적 적응의 모든 하위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

인구학적 특성, 민족정체성,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삶의 만족		HSCL-불안		HSCL-우울		HSCL-위기 및 일탈행동		HSCL-37 전체	
	β	t	β	t	β	t	β	t	β	t
(상수)		13.229		9.184		9.048		14.616		12.365
1 성별	.047	.576	.101	1.234	.192	2.371 [*]	-.141	-1.731	.105	1.275
이주 시 나이	-.041	-.503	-.083	-1.017	-.011	-.135	.051	.619	-.032	-.394
	$R^2=.004$		$R^2=.017$		$R^2=.037$		$R^2=.022$		$R^2=.012$	
	$F=.285$		$F=1.247$		$F=2.814^*$		$F=1.664$		$F=.878$	
(상수)		3.780		3.760		3.645		7.097		5.306
2 성별	.057	.696	.104	1.259	.193	2.355 [*]	-.136	-1.659	.108	1.300
이주 시 나이	-.036	-.438	-.083	-1.011	-.010	-.117	.045	.553	-.033	-.400
민족정체성에 대한 탐구	.090	.977	-.010	-.107	.024	.259	-.116	-1.252	-.023	-.243
긍정·소속·전념	.141	1.521	.040	.423	.016	.170	.041	.437	.037	.392
	$R^2=.044$		$R^2=.018$		$R^2=.038$		$R^2=.033$		$R^2=.013$	
	$F=1.658$		$F=.619$		$F=1.434^*$		$F=1.230$		$F=.473$	

	삶의 만족		HSCL-불안		HSCL-우울		HSCL-위기 및 일탈행동		HSCL-37 전체	
	β	<i>t</i>	β	<i>t</i>	β	<i>t</i>	β	<i>t</i>	β	<i>t</i>
(상수)		5.146		1.425		1.483		4.576		2.615
성별	.032	.398	.096	1.233	.219	2.775**	-.100	-1.232	.126	1.616
이주 시 나이	-.019	-.225	-.034	-.411	-.035	-.406	.043	.489	-.022	-.265
민족정체성에 대한 탐구	.096	1.079	-.026	-.295	.023	.262	-.116	-1.281	-.031	-.352
3 공정·소속·전념	.102	1.086	.066	.721	.052	.560	.106	1.112	.083	.912
사회적 요인	-.086	-.878	-.089	-.923	.145	1.483	.030	.302	.035	.360
태도적 요인	-.046	-.494	.253	2.802**	.093	1.013	-.085	-.908	.144	1.595
가족적 요인	-.237	-2.650**	.290	3.322***	.268	3.024**	.225	2.471*	.325	3.717***
환경적 요인	-.093	-.936	.092	.941	.010	.106	.162	1.591	.090	.923
	$R^2=.154$		$R^2=.194$		$R^2=.169$		$R^2=.125$		$R^2=.194$	
	$F=3.203^{**}$		$F=4.243^{***}$		$F=3.582^{***}$		$F=2.514^*$		$F=4.229^{***}$	

* $p < .05$, ** $p < .01$, *** $p < .001$ (성별=남자: 0, 여자: 1)

V. 논 의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적응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 및 캐나다 이주 시 나이에 따른 심리적 적응에 차이가 있었다. 먼저 성별에 있어 남자보다 여자 이민 청소년 1.5세대의 우울이 더 높은 것으로 예측된 결과는 미주지역 조기유학 청소년의 우울이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선행연구(이수연, 2009)와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학생과 1.5세대 청소년은 달리 구분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연구 결과를 통해 10년 전후의 장기 정착 이주 청소년의 우울문제는 한국인 이민 1.5세대 여자 청소년에게 더 취약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캐나다 이주 시 나이에 따른 차이 검증에서 10~12세 즉, 초등학교 4~6학년 때에 이민 간 1.5세대 이민자녀들이 가장 삶의 만족이 높았으며, 13~17세 즉, 중 고등학교의 늦은 나이에 이민 간 자녀들의 삶의 만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한국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미국에 늦은 나이²⁾에 이주할수록 우울이 더 낮다는 Ji와 Duan(2007)의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그 이유는 본 연구가 기존 연구와 같이 성인과 청소년을

함께 연구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삶의 만족이라는 긍정적 심리적 지표로 심리적 적응을 함께 측정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심리적 적응의 긍정적 측면으로서 삶의 만족이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문화적응 요소와는 다를 수 있음(채정민, 2003)이 입증되었다. 또한 미국의 용광로 정책과 달리 보다 적극적인 이민자 수용을 하고 있는 캐나다 개방정책, 즉 복합문화주의가 초등학교 때 이민을 간 한국인 이민 1.5세대 청소년들에게 보다 높은 삶의 만족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즉, 초등학교와 같은 기초교육을 두 나라에서 다 경험함으로써 이주국의 언어인 영어를 원어민에 가깝게 배울 수 있고, 또한 두 나라의 문화와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보다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어 삶의 만족이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거주기간과 심리적 적응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조명덕(1997; 김민정, 2007 재인용)은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의 한국계 이민자 집단 연구 결과 최소한 5년의 적응기간을 거친 이민자 집단과 5년이 안된 이민자 집단의 경제적응양상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처럼 5년 미만의 이주초기 시기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취약한 시점이 될 수 있는데, 본 연구 대상자들의 캐나다 거주기간 변수에 대한 평균이 9.04년으로 장기 거주자가 많았으며, 거주기간에 대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이 심리적 적응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은 원인으로 해석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영어능력과 심리적 적응 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김은재(2010)의 경우 이주국의 언어 수준이 낮은 경우에 우울이 높게 나타났으며, Nho(2000)의 연구에서도 미국에서 태어났고 영어를 선호하는 청소년들에 비해서,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말을 선호하는 청소년들이 더 높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보였으며, 음주 및 흡연사용이 많았고, 내적문제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영어 쓰기능력이 정신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주국의 언어수준이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즉, 본 연구대상자의 영어 말하기능력은 전체 피험자 중 2명만 ‘충분하지 않다(not well)’로 응답하여 대부분 높은 영어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심리적 적응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은 원인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한국인 이민 1.5세대 청소년의 영어 쓰기능력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않지만, 학습적인 면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지 추후연구로 남겨두는 바이다.

2) Ji & Duan(2007)의 연구에서 연구대상의 미국도착 나이는 18세 미만, 19-30, 30-60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민족정체성은 캐나다 거주 한국인 이민 1.5세대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 중국인 이민 청소년 연구(Costigan et al., 2010)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즉, 한국인 이민 1.5세대 청소년의 경우 민족정체성보다는 가족적 요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이들의 삶의 만족, 불안, 우울, 위기 및 일탈행동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잘 예측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이는 개인이 느끼는 민족정체성의 정도가 모든 한인들에게서 공통적이지 않고 개인이 처한 사회 환경에 의해서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윤인진(1998)의 연구나,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때는 민족정체성이 큰 의미를 갖고 적응이 순조로울 때는 민족정체성의 의미가 감소한다(허원무, 1991; 이경란, 2006 재인용)는 선행 연구결과와도 맥락을 함께 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문화적응 과정에 있는 연구대상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민족정체성의 의미가 감소하는 것임을 지지해주는 결과라 하겠다.

한편 Grant(2008)의 연구에서는 나이집단에 따라 민족정체성과 심리적 기능 간의 관계에 있어 다른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십대 그룹에서는 그 관계에 있어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이 대부분 십대였던 점을 고려할 때, Grant(2008)의 결과를 지지하는 듯하다. 즉, 본 연구대상과 같이 10년이 지난 10대 한국인 이민 1.5세대의 민족정체성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중요하지 않는 이슈임을 짐작케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Zhou(1997)가 1.5세대를 정의할 때 6세에서 13세 사이에 미국에 도착한 자녀들과, 1세대와 거의 비슷한 청소년(13에서 17세 사이) 시기에 도착한 자녀들과 같은 두 집단으로 나눌 필요성이 있음을 입증해주는 결과라 하겠다. 한편, 윤인진과 채정민(2007)은 1.5세대의 연령 하한선이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문화에 친숙해질 수 있는 연령으로 상향 조절될 필요가 있으며, 그 연령은 한국의 교육체계상 초등학교에 진학하여 최소한 1년의 초등교육을 받은 만 7세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지지해주는 결과라 하겠다. 즉, 유치원 교육 상태에서 한국을 떠난 이민 1.5세대들은 한국인이라는 민족정체성에 대한 사전교육이나 국가관이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캐나다 이민을 가게 되었고, 이것이 한국문화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형성된 후 이민을 간 초등학교 이후 세대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추론케 한다.

셋째, 캐나다 거주 한국인 이민 청소년 1.5세대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족적 요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삶의 만족은 낮아지고 불안, 우울,

위기 및 이탈행동은 모두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가족적 요인의 문항 내용은 가족 간에 개인적 가치, 기대, 열망에 있어서의 갈등을 반영(Fuertes & Westbook, 1996)하는 것으로, 문항을 살펴보면 “나의 새로운 가치를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괴롭다.”, “내 미래에 대한 기대에 대해 가족들과 나 사이에는 갈등이 있다.” 로 이민 1세대인 부모와 자녀 간의 가치관 및 문화적 적응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들여다볼 수 있다. Fuligni(1998; Yeh, 2003 재인용)에 의하면, 이민 청소년들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청소년의 권한과 자율성에 대한 생각이 부모와 대립되어 부모 자녀간의 갈등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캐나다에 거주하는 이민자 자녀의 문제행동을 측정한 결과, 부모의 주류문화 수용 정도와 부적관계가 있었다(Pawliuk 외, 1996; Nho, 2000 재인용). 선행 연구결과들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가족적 요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즉 세대 간의 갈등 스트레스가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직 연구가 미진한 캐나다 거주 한국인 이민 1.5세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 그 영향력을 검증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해외 거주 한인 청소년을 위한 다문화 가족상담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즉,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가족적 요인이 이민 1.5세대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해외동포를 위한 부모자녀 세대 간의 갈등 완화, 가족기능 증진을 강화해야 하겠다. 또한 개인차를 고려한 개별적 접근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한국인 이민 1.5세대 여자 청소년의 우울, 초등학교 졸업 후 한국을 떠난 1.5세대 청소년의 이주 후 삶의 만족도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적으로 광역 밴쿠버와 그 주변 지역에 대상들이 국한되었고 캐나다 거주기간 평균이 9.04년으로 장기 거주자에 편포됨에 따라 캐나다 거주 한국인 이민 1.5세대 청소년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추후 연구방향으로 정착초기 이민 1.5세대를 추가로 자료수집하거나, 종단연구를 통해 이주 초기와 중기, 후기의 심리적 적응의 변화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스트레스 사건이나, 학교적응, 부모-세대 간 가치관 갈등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방향으로 특히 캐나다 거주 한국인 이민 부모를 대상으로 포함하여 부모-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가 심리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참 고 문 헌

- 권복순 (2009). 한국어 능력, 자이존중감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구지역 베트남, 필리핀, 중국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1(2), 5-32.
- 김규선 (2008). **CANADA 한인 이민사회 연구: 이민만족도 및 필요사항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민정 (2007). **캐나다 거주 한인 어머니의 부모신념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은재 (2010).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현아, 조영아, 김연희 (2012).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척도 개발을 위한 타당화 연구. **한국 심리학회지: 학교**, 9(1), 25-46.
- 김후조 (2010).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낙관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희경, 손연정, 이미라, 임경춘, 장혜경, 한수정 외 (2010). 국내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영향요인. **성인간호학회지**, 22(2), 143-152.
- 목혜연 (2007). **새터민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보람 (2006). **새터민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음주행위: 사회적 지지와 음주 기대의 조절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양계민 (2009). 한민족정체성과 자민족중심주의가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0(4), 387-421.
- 외교부 재외동포 현황 (2011). www.mofat.go.kr/main/index.jsp에서 2013년 3월 21일 인출
- 윤인진 (1998). 중앙아시아 한인의 언어와 민족정체성. **재외한인연구**, 7(1), 63-120.
- 윤인진, 채정민 (2007). **북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연구보고 07-R13-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경란 (2006). **재북미 한인청소년을 위한 한국문화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생활문화 교육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수연 (2009). 미주지역 조기유학 청소년의 우울에 관련된 요인. **청소년학 연구**, 16(5), 99-120.
- 이정수 (2012). **국내 이민자 사회 통합정책의 고찰 및 문제점 분석**.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훈진 (2009). 수용(Acceptance)이 심리적 증상, 자존감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지행동치료**, 9(1), 1-23.
- 조은숙 (2011). 부모 비 동반 조기 유학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문제점 및 지원방안: 캐나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2(1), 87-114.
- 채정민 (2003).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내 심리적 문화적응 기제와 적응형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한유경 (2009). **재한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몽골 유학생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ean, T., Derluyn, I., Eurelings-Bontekoe, E., Broekaert, E., & Spinhoven, P. (2007). Validation of the multiple language versions of the hopkins symptom checklist-37 for refugee adolescents. *Adolescence*, 42(165), 51-71.
- Berry, J. W. (1997). Lead article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5-68.
- Berry, J. W. (2005). Acculturation: Living successfully in two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6), 697-712.
- Costigan, C. L., Koryzma, C. M., Hua, J. M., & Chance, L. J. (2010). Ethnic identity, achievement,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Examining risk and resilience among youth from immigrant Chinese families in Canada.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6(2), 264-273.
- Crocker, J., Luhtanen, R., Blaine, B., & Broadnax, S. (1994). Collective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White, Black, and Asian college students. *Society f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0(5), 503-513.
- Danico, M. Y. (2004). *The 1.5 generation: Becoming Korean American in Hawaii*.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i Press.
- Fuertes, J. N., & Westbrook, F. D. (1996). Using the social, attitudinal, familial,

- and environmental (S.A.F.E.) acculturation stress scale to assess the adjustment needs of Hispanic college students.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29(2), 67-76.
- Grant, J. H.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ethnic identity and psychological health: A meta-analytic review*.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ami.
- Hovey, J. D., Kim, S. E., & Seligman, L. D. (2006). The influences of cultural values, ethnic identity, and language use on the mental health of Korean Americ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Psychology*, 140(5), 499-511.
- Isajiw, W. W. (1990). *Ethnic identity and equality: Varieties of experience in a Canadian City*.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Isajiw, W. W., Sev'er, A., & Driedger, L. (1993) Ethnic identity and social mobility: A test of the "drawback model". *Canadian Journal of Sociology*, 18(2), 177-196.
- Ji, P., & Duan, C. (2007). The relationship among acculturation, acculturation stress, and depression for a Korean and a Korean-American sample. *Asian Journal of Counselling*, 13(2), 235-270.
- Kim, J. (2011). *Travel motivations, information search behavior, and ethnic identity development among 1.5 generation Korean American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Lee, R. M. (2003). Do ethnic identity and other-group orientation protect against discrimination for Asian America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2), 133-141.
- Mena, F. J., Padilla, A. M., & Maldonado, M. (1987). Acculturative stress and specific coping strategies among immigrant and later generation college student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9(2), 207-225.
- McMahon, S. D., & Watts, R. J. (2002). Ethnic identity in urban African American youth: Exploring links with self-worth, aggression, and other psychosocial variable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0(4), 411-432.

- Mossakowski, K. N. (2003). Coping with perceived discrimination: Does ethnic identity protect mental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4(3), 318-331.
- Nho, C. R. (2000). *Psychological well-being of Korean American and immigrant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 O'Connor, B. P., & Vallerand, R. J. (1998) Psychological adjustment variables as predictors of mortality among nursing home residents. *Psychology and Aging*, 13(3), 368-374.
- Phinney, J. (1992). The multigroup ethnic identity measure: A new scale for use with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from diverse group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7(2), 156-176.
- Utsey, S. O., Chae, M. H., Brown, C. F., & Kelly, D. (2002). Effect of ethnic group membership on ethnic identity, race-related stress, and quality of life.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8(4), 366-377.
- Ward, C. (2006). Acculturation, identity and adaptation in dual heritage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0(2), 243-259.
- Yasui, M., Dorham, C. L., & Dshion, T. J. (2004). Ethnic identity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 validity analysis for European America and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9(6), 807-825.
- Yeh, C. J. (2003). Age, acculturation, cultural adjustment, and mental health symptoms of Chinese, Korean, and Japanese immigrant youth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9(1), 34-48.
- Zhou, M. (1997). Growing up american: The challenge confronting immigrant children and children of immigrant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3, 63-95.

ABSTRACT

The influence of ethnic identity and acculturative stress of 1.5 generation Korean immigrant adolescents on their levels of psychological adjustment

Jang, Inok* · Kim, Hyun-Ah**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ethnic identity and acculturative stress of 1.5-generation, Korean immigrant adolescents living in Canada upon their levels of psychological adjustment (satisfaction with life, anxiety, depression, and externalizing behavior). The participants in this survey consisted of 15- to 24-year-old Korean immigrant adolescents who had moved to Canada with their parents at the ages of between 5 and 17. A total of 150 samples($M = 19.2$) was statistically processed by means of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the results were as follow: 1) high familial stress-one of the sub-factors of acculturative stress (social, attitudinal, familial, and environmental stress) -was the significant predictor for low life satisfaction levels, 2) high familial and attitudinal stress were two significant predictors for high anxiety levels, and 3) familial stress was a significant predictor for high levels of depression, externalizing behavior, and overall HSCL-37. On the other hand, the results indicated that ethnic identity does not have an influence upon any of the sub-factors of psychological adjustment.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also discussed.

Key Words : ethnic identity, acculturative stress, 1.5 generation, immigrant adolescents, psychological adjustment

투고일 : 2013. 9. 9, 심사일 : 2013. 11. 29, 심사완료일 : 2013. 12. 10

* Vancouver Multicultural Counselling Centre

** Seoul Cyber University